



FTA EXPERTS

RCEP 발효를 통해 본 한·중·일 주요 수출품의
대호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라공우 |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아세안 주요국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연구

신범수 |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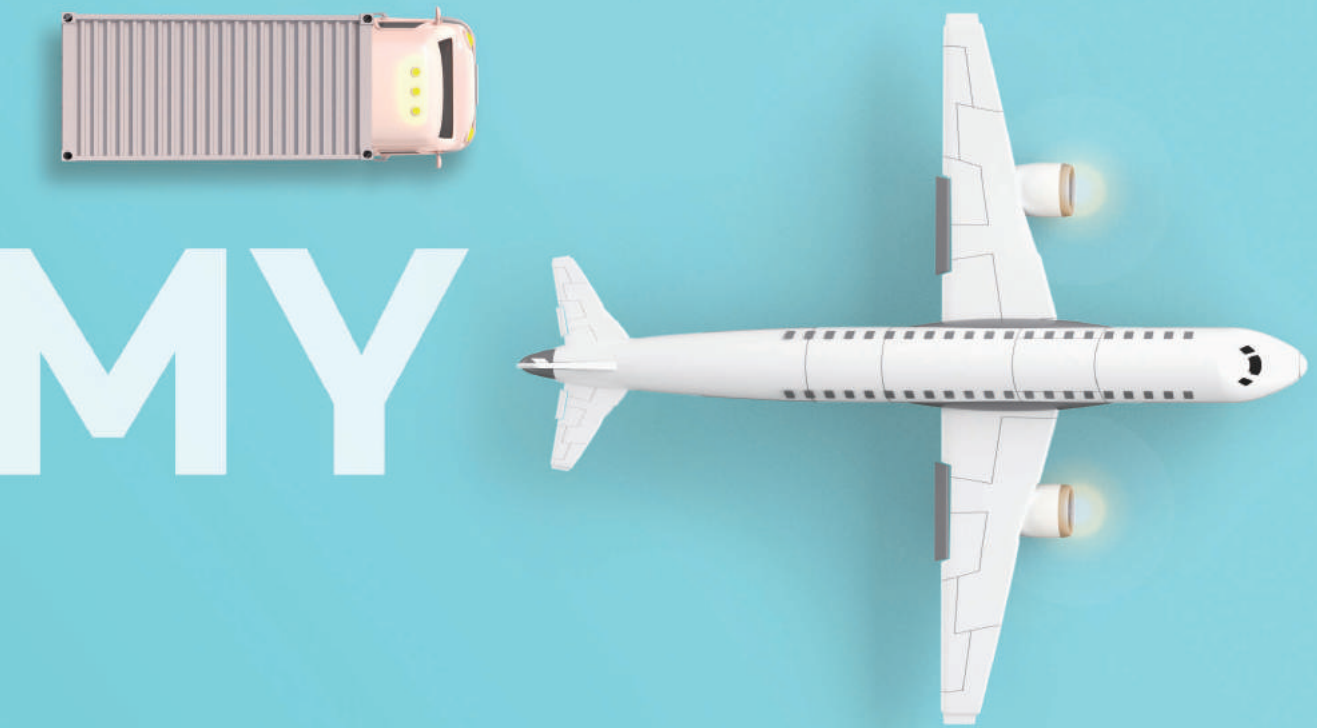
ECONOMY



RCEP 발효를 통해 본 한·중·일 주요 수출품의 대호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라공우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1 서언

RCEP¹은 아세안 10개국²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며,³ 이 15개 회원국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RCEP 회원국 인구 합계는 22억 6,000만 명으로 전 세계의 29.9%에 달한다.

1 RCEP은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2015년까지 타결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9년 11월 협정문을 타결했다. 그 후 중국과 인도의 저가 제품이 경쟁 우려로 협상에서 빠지면서 2020년 15개국 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한국보다 비준 절차를 일찍 마친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며, 한국은 2022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다.

2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3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RCEP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무역 규모는 각각 26조 3,000억 달러, 5조 4,000억 달러로 전 세계 비중의 30.0%, 2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통합시장인 USMCA의 GDP(24조 4,000억 달러(27.9%), 무역 규모는 2조 5,000억 달러(13.6%))보다 큰 수준이다.

현재 RCEP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RCEP은 체결국 간의 무역 투자 장벽을 전면적으로 낮추거나 관세 철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RCEP 발효를 통하여 한국은 대양주 국가(호주, 뉴질랜드)와의 무역 관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역 규모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호주에 대한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수출은 약 187억 달러, 수입은 약 449억 달러로 최근 5년 동안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은 호주에 대한 무역수지는 원자재(철광석, 유연탄 등) 수입으로 인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호주 시장에 대한 한국의 주요 20개 수출 상품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대호주 시장에서의 불변시장점유율(CMS) 산출을 통해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의 경쟁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RCEP의 특성

RCEP은 최초의 '범아시아(Pan-Asia) FTA'로서, 참여한 개도국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중간 수준의 FTA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RCEP 체결 이전 15개 국가들 사이에는 대부분 양자 간 FTA가 체결되어 있었고 2조 3천억 달러(2019년 기준) 규모의 상품무역 자유화 수준도 이미 83%에 달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무역 자유화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⁴

또한, RCEP 협상에 참여한 개도국들이 자국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게 여지를 준 것도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무역규칙 면에서 기존의 'ASEAN+1 FTA'를 하나의 FTA로 통합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통일된 무역규범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을 하나의 FTA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동북아와 아세안 국가들 간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RCEP 이전까지 한·일, 중·일 간에는 FTA가 없었으나 RCEP을 통해 한·중·일 3국은 낮은 수준이지만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었다.

RCEP은 향후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역내 교역 비중을 높이면서 아시아 역내 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통합의 플랫폼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RCEP은 그동안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많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협정의 적용 범위와 개방 측면에서 더 포괄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502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RCEP에 참여한 15개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8%이며(RCEP 참여국 중에서는 중국(64.5%), 베트남(48.9%), 일본(39.3%), 태국(30.3%) 등과 거래), 응답 기업의 83.3%는 RCEP에

4 이윤영(20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와 전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1권 제30호, pp.1-5.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했는데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 정부 홍보 부족, 언론 보도 미흡, 중소기업의 관심 부족 등을 들었다.⁵

RCEP 참여가 FTA 미체결국이었던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유는 일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강화, 일본 원자재를 비롯하여 부품 수입의 단가 인하 등을 들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RCEP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⁶

3 한국의 대호주 무역 현황

한국의 대호주의 무역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은데, 우선 호주에 대한 수출은 2018년 96억 1,043만 달러에서 2022년 187억 5,303만 달러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입을 보면, 2018년 207억 1,864만 달러에서 2022년

449억 2,940만 달러로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호주에 대한 무역수지는 원자재(철광석, 유연탄 등) 수입으로 인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표 1] 한국의 대호주 무역 현황

(단위: 천 불, %)

연도	호주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2	18,753,026	92.3	44,929,397	36.5
2021	9,750,478	57.6	32,917,963	76.0
2020	6,188,528	-21.6	18,707,121	-9.2
2019	7,890,566	-17.9	20,608,238	-0.5
2018	9,610,425	-51.6	20,718,640	8.1

자료: 한국무역협회

5 중소기업중앙회(2020), 「RCEP(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6 최준호(2022), 「RCEP 발효에 대비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제23권 제1호, pp.2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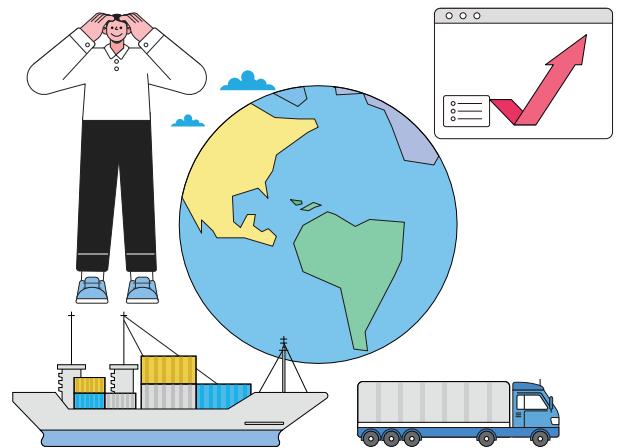
4 한·중·일 주요 수출 상품의 대호주 시장에서 불변시장점유율 분석⁷

먼저, 분석 대상 상품은 한국의 대(對)전 세계 수출 상위 20개 품목⁸으로 하여 한국, 중국, 일본 수출 상품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한국의 대호주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 모델을 사용하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력 분석을 하였다.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은 수출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51년 처음으로 무역 분야 연구에 도입되었는데, 이 모델은 특정한 국가의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여러 가지 요소로 세분하고 각각의 분해된 요소가 수출 변화에 기여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 편리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에 전 세계 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시장점유율은 4가지 요소에 의해 나뉘는데, 이는 상품구성 효과(commodity composition effect), 시장점유율 효과(market share effect), 경쟁력 효과(competitiveness effect), 시장분배 효과(market distribution effect) 등으로 나타난다.



7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내용은 2023년 3월 발간된 국제상학 논문집 조일림, 라공우의 “한국 주요 수출 상품의 대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의 내용 중 대호주 불변시장점유율 분석표를 발췌하여 인용함.

8 HS 2710(석유와 역청유), HS 2841(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HS 2902(환식탄화수소), HS 3304(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HS 3901(에틸렌의 중합체), HS 39079(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HS 7208(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HS 7210(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HS 8473(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9(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HS 8486(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HS 8507(축전지), HS 8517(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HS 8523(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HS 8529(부분품), HS 8534(인쇄회로), HS 8542(전자집적회로), HS 8703(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HS 8708(부분품과 부속품), HS 8901(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 등)

한국의 대호주 및 뉴질랜드의 수출증감액 = 한국의 비교년도 대호주 수출액
- 한국의 기준년도 대호주 수출액

$$\begin{aligned}
 &= \sum_i (EX_{it_1} - EX_{it_0}) \\
 &= \sum_i (IM_{it_1} \mu_{it_1} - IM_{it_0} \mu_{it_0}) \\
 &= \sum_i [IM_{it_1} (\mu_{it_1} - \mu_{it_0}) + \mu_{it_0} (IM_{it_1} - IM_{it_0})] \\
 &= \sum_i IM_{it_1} (\mu_{it_1} - \mu_{it_0}) + \sum_i \mu_{it_0} (IM_{it_1} - IM_{it_0}) \\
 &= \sum_i IM_{it_1} (\mu_{it_1} - \mu_{it_0}) + \sum_i \mu_{it_0} [(IM_{it_1} (\omega_{it_1} - \omega_{it_0}) + \omega_{it_0} (IM_{it_1} - IM_{it_0}))] \\
 &= \sum_i IM_{it_1} (\mu_{it_1} - \mu_{it_0}) + \sum_i \mu_{it_0} IM_{it_1} (\omega_{it_1} - \omega_{it_0}) + \sum_i \mu_{it_0} \omega_{it_0} (IM_{it_1} - IM_{it_0})
 \end{aligned}$$

EX_i : 한국의 i제품 대호주 수출액

IM_i : 호주의 i제품 수입액

IM : 호주의 총 수입액

μ_i : 한국의 i제품 호주 시장 점유율

ω_i : 호주의 총 수입 중 i제품의 비중

t_1 : 비교년도(2021년)

t_0 : 기준년도(2012년)

[표 2] 불변시장점유율(CMS) 모델의 해석

요인	경쟁력 요인 (Competitive effect)	상품공급구조 변동 요인 (Secon-order effect)	수입 규모 변동 요인 (Scale effect)
수식	$\sum_i IM_{it_1} (\mu_{it_1} - \mu_{it_0})$	$\sum_i \mu_{it_0} IM_{it_1} (\omega_{it_1} - \omega_{it_0})$	$\sum_i \mu_{it_0} \omega_{it_0} (IM_{it_1} - IM_{it_0})$
개념	수출국의 경쟁력(점유율) 변동이 수출액 증감에 미친 효과	전 세계 수입 수요의 상품별 비중의 변화가 수출국 전체 수출 규모 증감에 미친 효과	전 세계 수입 수요의 변화가 수출국의 수출 규모 증감에 미친 효과
의미	그 효과가 (+)이면 경쟁력 강화이며, (-)이면 경쟁력 약화임	효과가 (+)이면 상품구성이 비교우위, (-)이면 비교열위	효과가 (+)이면 긍정적이고, (-)이면 부정적임을 나타냄

자료: 심재희, “대인도 수출산업의 경쟁력과 수출변동요인 분석”, 인문사회21, 제10권 4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8. p.215.



먼저, 한국의 대호주 시장에서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를 보면, 환식탄화수소(2902), 에틸렌의 중합체(3901), 폴리아세탈 수지 등(3907), 평판 열간(熱間) 압연 제품(7208),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8473),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8479), 반도체 보울(8486), 전화기(8517), 부분품(8529), 전자집적회로(8542), 부분품과 부속품(8708) 품목은 수출은 감소하였다.

이들 품목에서 감소한 원인들을 보면 대다수가 수입 수요보다는 경쟁력 요인이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석유와 역청류(2710) 대호주의 수출증가분 4억 6,885만 달러 중 호주의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변동(수입규모 요인)은 2천만 달러, 경쟁력변화로 인한 변동 5,097만 달러와 호주의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변동은 2억 5,841만 달러로 플러스(+)를 기록하여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3304),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 디스크 등의 비휘발성 기억장치(8523), 승용자동차(8703)의 경우, 대호주 시장에서는 수출증가분 모든 플러스(+)로 기록하여 경쟁력 변화 요인과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3] 한국의 호주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HS	A	(a)	(b)	(c)	전체
2710	468,853,843	5,097,097	1,063,322.1	20,744,518.3	26,904,937
2841	0	0	0	0.01391925	0.013919
2902	-7,858,119	-1,159,738	-137.84258	352,821.77	-807,054.4
3304	27,095,624	2,229,472	85.602526	2,515.05176	2,232,073
3901	-19,015,251	-164,241	-14.716069	63,365.6401	-100,889.7
3907	-13,512,170	-485,217	-53.664885	103,062.49	-382,208
7208	-20,825,015	-38,775.7	-5.9230574	330,941.882	292,160.3
7210	153,336,989	27,969.9	-35.674997	63,869.4006	91,803.63
8473	-2,262,879	-101,212	-6.1887526	18,548.5199	-82,669.38
8479	-585,224	7,915.238	-0.1886353	3,712.32803	11,627.38
8486	-22,636	83.92369	1.687E-06	0.0152392	83.93893
8507	127,176,738	-966,884	18,479.431	669,397.703	-279,006.9
8517	-229,114,994	-890,848	-849.71347	374,088.706	-517,609.2
8523	36,718,464	3,622,510	78.236779	4,678.98836	3,627,267
8529	-1,118,113	-76,627.9	-0.2883574	18,035.881	-58,592.26
8534	3,895,207	391,993.2	1.1298384	207.062452	392,201.4
8542	-481,771	1,043,760	164.85917	71,100.4797	1,115,025
8703	235,119,104	23,488,835	165,261.37	11,395,451.3	35,049,548
8708	-174,728,672	-3,341,657	-3,040.4824	772,960.592	-2,571,737
8901	0	0	0	279,583.335	279,583.3

A: 수출증감액, (a): 경쟁력, (b): 상품공급, (c): 수입규모, 전체: (a)+(b)+(c)

둘째, 중국 대호주 시장에서는 순항선 등(890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 디스크 등의 비휘발성 기억장치(8523), 반도체 보울(8486) 품목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순항선 등(8901) 및 디스크 등의 비휘발성 기억장치(8523)는 경쟁력 요인과 수입규모 요인 분석 결과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상품공급 요인 분석 결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대호주 수출 감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는 경쟁력 요인과 상품공급 요인 분석 결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대호주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전화기(8517), 석유와 역청류(2710), 승용자동차(8703), 축전지(8507), 부분품과 부속품(8708),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8479) 등 품목은 기준년도에 비해 수출은 증가하였다.

이들 품목에서 증가한 원인들을 보면 대다수가 수입규모 요인과 상품공급 요인보다는 경쟁력 변화가 더 커서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4] 중국의 호주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HS	A	(a)	(b)	(c)	전체
2710	1,294,234,336	73,163,582.1	5,932.245	826.8032	73,170,341.2
2841	787,277	125,677.351	1.283695	8,773.404	134,452.039
2902	1,032,802	43,377.9465	0.014469	16.41153	43,394.3725
3304	9,923,444	-598,920.471	559.0289	195,058.4	-403,303.088
3901	7,359,425	33,691.8035	0.281066	272.4393	33,964.5238
3907	66,491,514	732,528.9	52.98196	36,354.97	768,936.853
7208	10,533,329	19,879.4436	0.025589	530.2737	20,409.7428
7210	-130,899,429	-4,143,585.46	-3,039.23	1,126,211	-3,020,414.18
8473	32,447,603	111,416,493	150,489.9	6,548,542	118,115,525
8479	151,995,149	29,313,887.1	8,601.122	259,546.7	29,582,035
8486	-619,248	117,596.652	0.227612	116.6127	117,713.492
8507	324,264,601	27,157,116.8	158,156.1	1,957,157	29,272,429.5
8517	1,510,208,727	275,153,528	12,286,792	1.07E+08	394,408,300
8523	-3,557,795	4,224,672.64	-1,248.57	774,369.1	4,997,793.15
8529	17,517,742	5,272,429.22	862.1421	147,555.9	5,420,847.21
8534	9,998,688	2,045,547.19	540.5371	250,634.1	2,296,721.85
8542	4,988,532	19,826,073.7	3,380.693	123,234.4	19,952,688.7
8703	1,170,377,848	110,157,662	33,417.85	15,039.97	110,206,120
8708	289,620,147	70,587,010.2	76,240.08	1,807,019	72,470,269.6
8901	-195,167,115	1,378,686.06	-30.3977	100,393.6	1,479,04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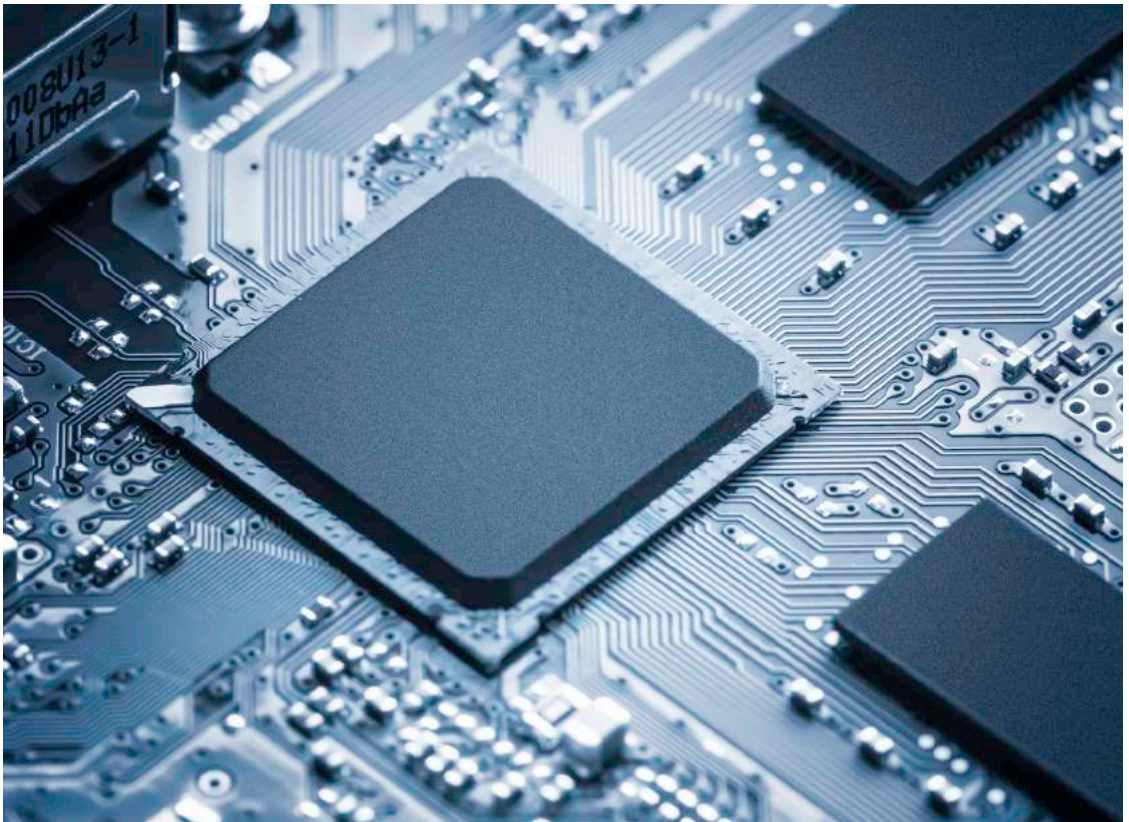
A: 수출증감액, (a): 경쟁력, (b): 상품공급, (c): 수입규모, 전체: (a)+(b)+(c)

셋째, 일본 대호주 시장에서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세로 보인다.

특히, 석유와 역청류(2710), 승용자동차(8703), 부분품과 부속품(87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 등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경쟁력 변화와 상품공급 요인 분석 결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대호주 수출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반도체 보울(8486), 미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3304)는 경쟁력 요인과 상품공급 요인 및 수입규모 요인으로 모든 플러스(+)로 기록하였으며, 전자집적회로(8542)는 경쟁력 요인과 상품공급 요인으로 인한 변동은 플러스(+)를 기록해 반면, 수입규모 요인 분석 결과는 플러스(+)를 기록하여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5] 일본의 호주 수출증감액 분해 결과

HS	A	(a)	(b)	(c)	전체
2710	-554,322,276	-43,633,282.5	-219,419.1	6,445,370	-37,407,331.91
2841	-103,371	-3,694.7233	0.0042087	791.1615	-2,903.557568
2902	-12,272	500.621823	0	0	500.621823
3304	5,067,030	393,563.0757	26.489582	4,978.925	398,568.4907
3901	-1,535,387	1,299.501168	0.0031727	20.82725	1,320.331594
3907	-1,645,453	1,381.579776	0.0254215	1,285.267	2,666.872401
7208	-17,738,431	-39,526.772	-1.574126	18,235.7	-21,292.64181
7210	-75,005,699	558,170.8229	10.920502	9,344.304	567,526.0478
8473	-1,786,496	-26,843.1333	-1.095275	7,356.659	-19,487.56949
8479	-5,211,350	-804,599.887	-649.7792	347,301.8	-457,947.8614
8486	507,356	26,082.38302	0.3728008	990.588	27,073.34382
8507	10,268,576	-1,469,562.4	26.097697	102,615.5	-1,366,920.759
8517	-21,135,878	-104,610.907	-19.23142	16,324.13	-88,306.01009
8523	-28,725,787	11,883,525.75	1,184.2458	333,588.4	12,218,298.41
8529	-4,945,401	34,136.30256	9.0085756	25,697.05	59,842.36212
8534	-1,864,710	-4,921.20185	-0.004331	566.8366	-4,354.369622
8542	297,680	-31,205.1496	-0.765995	4,704.964	-26,500.95179
8703	-549,106,421	-206,522,656	-7,372,146	145,000,000	-68,932,144.05
8708	-280,482,310	-18,920,402.8	-40,118.3	3,603,187	-15,357,333.96
8901	0	0	0	0	0

A: 수출증감액, (a): 경쟁력, (b): 상품공급, (c): 수입규모, 전체: (a)+(b)+(c)



본고에서는 호주 시장에 대한 한국의 20대 수출상품에 대한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UNcomtrade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한·중·일의 대호주 불변시장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데 반해 중국은 HS 8517(전화기), HS 2710(석유와 역청유), HS 8703(승용자동차) 품목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CMS 분석 결과 한국은 HS 2710(역청류(원유 제외)) 품목에서 수입 수요 증가, 경쟁력 변화로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HS 3304(미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HS 7210(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HS 8523(디스크 등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HS 8703(승용자동차)의 경우, 대호주 시장에서는 수출증가분 모든 플러스(+)로 기록하여 경쟁력 변화 요인과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대호주 수출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주요국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연구¹



신범수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1 들어가면서

최근 코로나19, 미중 패권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요인으로 국제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GVC 핵심 거점은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구 6억4천700만 명의 아세안 10개국은 연평균 5%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세안은 중산층 확대와 높은 젊은 인구 비율(3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약 63%)로 생산거점뿐 아니라 신흥 소비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1 본 기고문은 관세학회지 제23권 4호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으로, 2020년 456억 달러 무역흑자 가운데 340억 달러(약 40조원)가 이 지역에서 나왔다.

2017년 이래 아세안은 한국에 있어 제2의 교역 대상 지역으로, 전체 교역의 14.7%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세안 주요국 산업·품목별 교역 현황과 아세안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교역량이 많은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알아보고, 한·아세안간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무역의 무역특화지수(TSI :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품목과 완화시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뿐만 아니라 추후 이어질 FTA협상에서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아세안 주요 품목 분석 및 원산지결정기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아세안의 수출·수입액 상위 3개 품목은(HS 2단위) 85류(전기전자), 27류(광물성연료), 84류(기계류)이다.

위 3개 품목을 HS 6단위 수출 및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을 나열하면 다음<표 1-1>과 같다.

[표 1-1] 2016~2020년 아세안 85, 27, 84류 주요 10개 품목(HS 6단위)

HS 2단위	HS 6단위
제85류	8542.39, 8542.31, 8517.12, 8517.70, 8542.32, 8542.90, 8517.62, 8541.40, 8534.00, 8529.90
제27류	2710.19, 2709.00, 2710.12, 2711.11, 2701.19, 2711.21, 2701.12, 2716.00, 2702.10, 2713.20
제84류	8473.30, 8471.70, 8411.91, 8443.99, 8471.30, 8471.50, 8411.12, 8443.31, 8415.10, 8486.20



3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 및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은 원산지결정의 일반원칙을 세번변경 단위 또는 역내부가가치 특정비율 이상으로 하고 예외 품목은 품목별 원산지기준안에 규정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는 모든 물품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기준안을 정하는 여타의 FTA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에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에는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과 특정국가가 아닌 아세안 역내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농산물에만 해당)하는 역내완전 생산기준, 선택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의 일부공정이 FTA 체결국 영역 밖에서 수행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인 역외가공기준 등이다.

위에서 분석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의 아세안의 수출·수입액 상위 3개 품목 중 한·아세안 FTA 해당 품목인 85류(전기전자),

84류(기계류) “부속서 3 부록 3 품목별 원산지 기준(HS2017 기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85류는 8504.50, 8540.71 품목의 원산지 부여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이며, 8517.62, 8517.61, 8519.30, 8528.71, 8508.19, 8543.70 품목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 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으로 원산지를 부여한다.

또한 8508.60, 8517.12, 8518.30, 8518.50, 8522.90, 8525.60, 8528.72, 8532.22, 8536.10, 8539.21, 8539.31, 8539.90, 8540.20, 8540.40, 8540.60, 8540.72, 8540.89, 8540.91, 8541.90 품목의 원산지부여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이다.

8517.70, 8523.52, 8529.90 품목은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을 원산지 부여기준으로 한다.

다음 84류(기계류)는 다음과 같다.

8415.10품목의 원산지부여기준은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이며, 8479.81, 8479.89, 8482.10 품목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으로 원산지를 부여한다.

또한 8486.10, 8486.20, 8486.30, 8486.40 품목의 원산지부여기준은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을 원산지 부여기준으로 한다.



[표 1-2] 2016~2020년 아세안 85, 27, 84류 주요 10개 품목(HS 6단위)

원산지부여기준	HS코드	
	85류	84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8504.50, 8540.71	-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	84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7.62, 8517.61, 8519.30, 8528.71 8508.19, 8543.70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08.60, 8517.12, 8518.30, 8518.50, 8522.90, 8525.60, 8528.72, 8532.22, 8536.10, 8539.21, 8539.31, 8539.90, 8540.20, 8540.40, 8540.60, 8540.72, 8540.89, 8540.91, 8541.90	8479.81, 8479.89, 8482.10,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해당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7.70, 8523.52, 8529.90	8486.10, 8486.20, 8486.30, 8486.40



4 국제경쟁력효과 분석 및 결과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국 산업·품목별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별 한·아세안의 원산지결정 기준을 알아보고 한·아세안간 국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무역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분석하였다.

아세안 회원국의 주요 산업인 전기전자(85류), 기계(84류), 광물성 연료(27류) 3개 품목을 선정하여 3개 품목별 아세안에서 교역량(수출, 수입)이 가장 많은 10개 품목(HS code(6단위)기준)에 대한 5년(2016년~2020년)간의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한국 주요 전기전자(85류) 10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TSI) 분석결과 경쟁력이 매우 강한 품목을 보면 8517.12, 8517.62 품목으로 경쟁력 매우 우월한 제품으로서 교역성과가 높게 나타났고, 매우 약한 군에 속하는 품목으로는 8542.39, 8542.90, 8534.00, 8529.90 품목으로 위 4개 품목은 한국시장에서 경쟁력 절대 열위 품목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8517.12(휴대폰), 8517.62(스마트워치)이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생산량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가 베트남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와

반대로 경쟁력 절대 열위 품목인 8542.39(전자 집적회로), 8542.90(전자집적회로 부분품), 8534.00(인쇄회로), 8529.90(LCD 모듈)는 삼성전자와 같은 전기전자 분야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열위 품목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아세안-한국 주요 기계(84류) 10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TSI) 분석결과 경쟁력이 매우 강한 품목으로는 8471.70, 8443.99, 8471.50, 8486.20 품목이 경쟁력 매우 우월한 제품으로 나타났고, 한국시장에서 경쟁력 절대 열위 품목을 보인 품목으로는 8473.30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가 반도체 칩, PC 및 주변기기 등 고가의 첨단기계제품 생산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 8471.70 (CD-ROM 드라이브), 8443.99(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8471.50(데스크톱), 8486.20 (반도체 제조용 장비) 품목 경쟁력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싱가포르가 첨단기계제품 수출 경쟁력 때문에 아세안-한국 주요 기계(84류) 10개 품목 교역에서 아세안이 우위에 있었다.

셋째, 아세안-한국 주요 광물성 연료(27류) 10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결과 경쟁력이 매우 강한 품목으로는 2711.11, 2701.19, 2701.12, 2702.10 품목으로 경쟁력 매우 우월한 제품으로서 교역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매우 약한 군에 속하는 품목으로는 2710.19, 2710.12, 2713.20품목은 한국시장에서 경쟁력 절대 열위 품목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은 2711.11(천연가스(LNG)), 2701.19 (기타 석탄), 2701.12(역청탄), 2702.10(갈탄)와 같은 핵심 광물은 풍부한 반면 석유 정제기술이 한국보다는 부족하여 2710.19(기타 석유 및 조제품), 2710.12(경유 및 조제품), 2713.20 (석유 역청) 등의 품목에서 열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정책적 시사점

아세안 회원국의 주요 산업인 전기전자(85류), 기계(84류), 광물성 연료(27류) 3개 품목에 대한 한국과의 교역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기전자(85류) 산업은 아세안의 값싼 노동력을 기초하여 우회수출형의 값싼 생산기지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으며, 기계(84류) 산업은 싱가포르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에 있어 원자재는 물론 관련 중간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뿐더러 많은 국가와 광범위한 자유무역

협정(FTA)을 맺은 점도 유리한 여건에 있어 강점을 보였고, 광물성 연료(27류) 부문은 아세안 10개국이 고루 풍부한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아세안 내 경제협력국 다변화를 통해 핵심광물과 값싼 노동력의 생산기지를 늘리고, 첨단기계산업 공급망을 협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아세안의 인프라 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